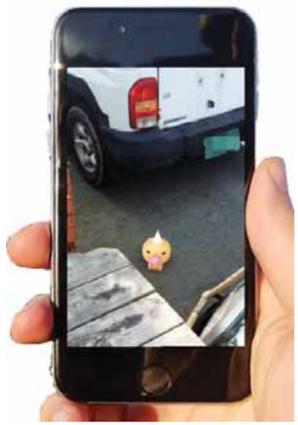


거문도에 뜬 '포켓몬 고'



세계적 열풍 증강현실 게임, 마을 전역에서 실행 확인 여수서 두시간 거리 배 하루 2편뿐...市, 관광 연계책 고심

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떠어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여수시도 '포켓몬 고'와 연계한 관광 대책 마련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휴가철과 연계한 특수를 누려야하지만 거문도가 쾌속선으로 2시간 이상거리인데다가 배편도 하루 2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문도 삼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신용해(35)씨는 27일 "지난 25일부터 거문도에서 '포켓몬 고' 게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면사무소가 위치한 고도는 물론 서도, 동도 등 거문도 대부분 마을 주변에서는 '포켓몬 고'가 실행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거문도 도착했어'라는 제목의 체험기를 남겼다. 이 네티즌은 거문도 삼산면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농협, 삼산면사무소 등 주변

에서 잡은 포켓몬 실루엣(엠프를 통해 보이는 모습·사진)과 포획한 포켓몬 등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과 게임 매니아 사이에서는 거문도가 예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지명인 '오렌지 제도'로 불리고 있다. 현재 여수에서 게임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여수시는 급작스런 소식에 당황한 눈치다. 휴가철과 겹쳐 떠어난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속초 등은 게임 실행 사실이 알려지고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면서 관광객이 10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실제 거문도로 향하는 배는 여수항에서 오전 7시40분과 오후 1시40분 하루 2차례 운항하며, 2시간10분가량 소요된다. 고흥나로도항에서는 1시간10분 거리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거문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해 특수를 누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우선 삼산면 거문도 일원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와이파이존을 설치해 '포켓몬 고' 매니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도 '포켓몬 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개발사 '나이엔틱 연구소'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중순에도 신안 흑산도, 대물도, 흥도 주변이 '포켓몬 고' 실행 가능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바다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한편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위치정보 시스템 등을 결합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 고'는 스마트폰으로 현실의 특정 장소를 비추면 화면에 포켓몬 캐릭터가 나타나고 이를 이용자가 포획하는 게임이다.

"여수 거문도에서도 '포켓몬 고(Go)'가 됩니다. 거문도는 '오렌지 제도'인가요."

여름 대표적인 관광지인 여수 거문도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10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강원도 속초와 울릉도, 울산시 간절곶 등에서만 '포켓몬 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지역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8 몰림 00:29
해질 19:39 몰짐 14:10

대위 식하는 비

대체로 흐리고 낮에 가끔 비가 오다가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25/32	보성	24/30
목포	25/31	순천	26/32
여수	25/29	영광	25/31
나주	24/32	진도	25/30
완도	25/31	전주	26/33
구례	25/32	군산	25/30
강진	25/31	남원	25/32
해남	25/31	흑산도	23/28
장성	24/31		

바다 날씨

시해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1.0	남동~남	0.5
남부	남~남서	0.5~1.5	남동~남	0.5~1.0
남해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	남(동)	0.5~1.0	남~남서	0.5~1.0
서부	남(서)	0.5~1.5	남~남서	0.5~1.0

돌때

목포	밀물	썰물
	08:22	01:11
	21:16	13:46
여수	03:06	09:34
	16:16	22:17

주간 날씨

29(금)	30(토)	31(일)	8/1(월)	2(화)	3(수)	4(목)
☁	☁	☁	☁	☁	☁	☁
25/32	25/31	25/32	24/32	24/32	24/32	24/32

전남·경남 전 해역 보름달물해파리 정보

전남 전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장흥군, 보성군, 영광군 등 전남과 경남 13개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보름달물해파리가 출현, 전남과 경남 전 해역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파리 주의경보는 해파리가 1개 시·군·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기준 100m당 5마리 이상)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해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남도 자체 조사 결과 장흥·보성·고흥을 접하는 장흥 득량만에서 100m당 15마리가 발견되고, 영광 송이도 주변 해역에서도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또 경남 거제·통영·남해에서도 100m당 평균 8마리가 확인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 해역에 가장 흔한 해파리로 6~8월 사이 연안에 대량으로 출현하며, 이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올해는 높은 수온으로 예년보다 일찍 첫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다.

해수부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의경보가 내려진 해당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27일 오전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교수·직원·총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총장 선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출방식 오늘 마지막 해법 찾나

이사회 후속 절차 논의...학장협의회 "갈등 해소" 촉구

조선대가 28일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재공모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대 학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28일 오전 10시30분 78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조선

대는 지난 18일 총장 후보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한 후보만 응모에 참여하면서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놓고 검토를 해왔다.

강원욱 이사장은 당시 "한 후보만(총장 초빙) 공모에 응할 경우 그대로(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교수평의회 등에 "구성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총장 선출이 더이상 늦춰지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이사회가 한발씩 양보한 합의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선대 단과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학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차기 총장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사회·대자협 등에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반가운 단비...폭염 한풀 꺾인다

오늘 광주·전남 5~40mm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1주일째 가뭄을 부리던 폭염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순천, 구례, 광양, 곡성 등 전남 4개 시·군을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를 해제했다.

기상청은 북한에서 남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28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에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8~32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김경민기자 kki@

보복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취소 처분

오늘부터...사이렌 남용도 규제

앞으로는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된다.

중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

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막힌 도로를 쉽게 통과하려고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을 막고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